



2020 ANNUAL REPORT

CHSC for the Right to Health and a Just World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건강과대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19 유행은 건강위기이자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였습니다.

건강과대안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힘 닿는 데까지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건강과대안의 기본적인 입장은 코로나 19 유행은 현 시기 정치경제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것이며, 그렇기에 해결 방향도 의료적, 기술적 접근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염병 유행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불평등이 코로나 19 대유행의 원인이자 악화요인임을 널리 알렸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는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와야 하며 기후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갔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여전히 건강과대안을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대표 **김의동**



미처 잘하지 못한 일을 고민하며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2020년은 코로나 19라는 단어를 빼고는 어떤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과 ‘경제’를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둘 중 하나의 선택은 곧 다른 하나의 포기처럼 조건화되고, 결정되는 듯이 논의되었습니다. 사회 변화를 위한 연구 실천을 목적으로 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도 이 두 방향 사이에서의 싸움, ‘모두의 건강’과 ‘경제 성장’이라는 양자택일의 압력 그 한 복판에 서고자 했고 그 덕에 다시 한번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기도 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19는 우리 곁에 누군가가 겪고 있던 어려움과 고통의 일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폭로의 바이러스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낸 현실을 직시하며 이 고통의 대안을 마련하자 호소했고,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일시적 문제일 뿐, 원래부터 존재하던 문제가 아니라며 모르는 척 현실을 덮으며 무시하고, 차별을 일삼으며 ‘거짓’과 ‘무지’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짓’과 ‘무지’의 힘이 기대 이상의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목격하며 답답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과대안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해보려 했지만, 세계적 위기에 마주한 상황에서 작은 공동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집합금지과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영리 연구단체가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조건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함께 했던 일들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미처 잘하지 못한 일들을 되짚어보며 코로나19가 아직 이어지는 2021년이지만, 다시 희망을 다져보려 합니다. ‘모두의 건강’이라는 인간 사이의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고 움직이는 사람들과 실천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떠올려 봅니다. 위기로 더욱 치닫는 지구환경, 지속가능하지 않은 먹거리체계,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조건, 누구나 필요로 하지만 제대로 조망되지 못하는 돌봄노동, 분절되고 있는 연대, 격차와 위계를 만드는 교육제도, 위기를 기술적 해결로 담아두고 있는 기술결정주의, 배제와 차별의 상징인 이주민 정책 등 건강과 대안이 넓히고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고민거리들을 다시 곰곰이 떠올려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시기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보여준 불평등과 비참한 현실이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시작하고 움직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힘든 한 해일지 모릅니다.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사람들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멀게만 보이는 이 길이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직은 마스크를 낀 채 손을 내밉니다. 덤썩 손을 잡지 못해도 같이 가자고 꼬덕여주시기를. 그리고 또 함께 걸어가주시길.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부대표 **문현아**

재난과 불평등, 그리고 건강과대안

지난 3월 11일은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일본 NHK는 대지진 당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를 다룬 다큐멘터리 ‘묻혀진 목소리 (Buried Voices)’를 방영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반응도 컸고 관심을 많이 받은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흥미위주의 보도였을 뿐, 저는 <재난과 성폭력> 또는 <재난과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다룬 기사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난 이후 성폭력의 급격한 증가는 일본에서의 특유한 일이 아닙니다. 옥스팜의 보고서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후 여성대상의 성적 폭력이, 피난민 캠프에서의 강간, 재난 이후 여성청소년 조기강제결혼을 포함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Felten-Biermann, 2006)을 기술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 아이티 대지진(2010) 등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재난의 피해자는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입니다. 이 ‘법칙’은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약자들이 피해를 집중적으로 당했습니다.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했지만 정작 그만큼 거리를 둘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공간’이 가장 공공적으로 전유되어야 할 시기에, 우리 사회의 주거 ‘공간’은 오히려 평범한 노동자의 수십 년의 노동의 가치만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노동 공간은 이른바 밀집되고 밀폐된 3밀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의 공간은 사치였고, 서비스 노동자나 돌봄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단거주시설에서 ‘요양’이라는 또는 ‘치료’라는 이름으로 삶을 견디고 있던 노인들, 장애인들에게는 최소한의 피신공간도 주어지지 않았지요. 반면 평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회정책들을 <쇼크요법>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힘센 사람들에게, 재난은 돌도 없는 기회였습니다.

지구적인 거대한 규모로 관철되는 팬데믹이라는 이름의 재난과 불평등. 학제간 연구를 내세우는 <건강과대안>이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역량이 아쉬운 한 해이기도 했구요. 그래서 올해에도 <디지털화 된 건강과 감시/디지털 자본주의 세미나>와 <간호노동포럼> 등의 프로그램이 작년의 공부모임을 이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작합니다. 팬데믹을 초래한 애그리비즈니스, 즉 기업형 공장식 농축산업의 메커니즘에 대한 먹거리 연구팀의 세미나도 더욱 심화되어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또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에도 출판작업들과 기획 강좌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힘이 부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그의 소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특유의 풍자적인 표현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 것 아닐까 싶습니다. 질병과 나이든티라는 인간의 숙명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결국 버티나갈 수 있는 건 결국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 그게 뭐냐구요? 물론 그것은, 플로렌티노가 51년 9개월 4일 동안 간직해왔다가 마침내 페르미나에게 고백하는 ‘그 것’이죠!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부대표 **우석균**

코로나 19 대응 :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강화 요구

2020년 건강과대안은 시작한 코로나 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케이(K)방역에 가려진 부족한 공공의료의 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1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공공병상 수와 5.5 퍼센트에 머물러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팬데믹 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과 각종 온 오프라인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시민사회 대책기구'와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에 함께 하였고, 1차, 2차, 3차 대우행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공공병상, 의료인력, 의료자원 준비 등을 요구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 19는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로서가 아니라 감춰지고 가려져 있던 우리사회의 모순과 불평등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과대안은 이 모순과 불평등을 눈감지 않고 이를 유지하고 더욱 심화시키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또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건강은 사회적인 것이며, 모두의 건강은 연대를 통해서만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코로나 19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임이 분명합니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사망한 고 정유엽 학생 유가족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조사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공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도 병행해 왔습니다.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 걸음 더' 수도권 모임을 결성, 정유엽 학생 사망 1주기 기념 추모식과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걷기 캠페인에 함께 하였습니다.

의료, 젠더,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꼭지점, 간호노동



건강과대안은 2020년에도 의료, 젠더, 노동 문제가 중첩되어있는 간호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지속했습니다. <한국의 간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를 요약한 소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료연대본부, 행동하는간호사회 등과 함께 서울, 대구, 부산 등의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만나 문제의 현실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준비와 교육 없이 환자 간호 현장에 내맡겨져 탈진 상태에 빠진 간호사 문제를 사회 문제로 공론화하고 제대로 된 코로나 19 치료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코로나 19 환자 인력 개선을 위한 <안전하고 질 높은 코로나 19 환자 입원 병동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제안하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건강과대안은 한국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젠더에 따른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를 위해, 간호 노동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우선순위를 둔 사회 정책이 시급함을 알리는데 노력했습니다.



재생산권 확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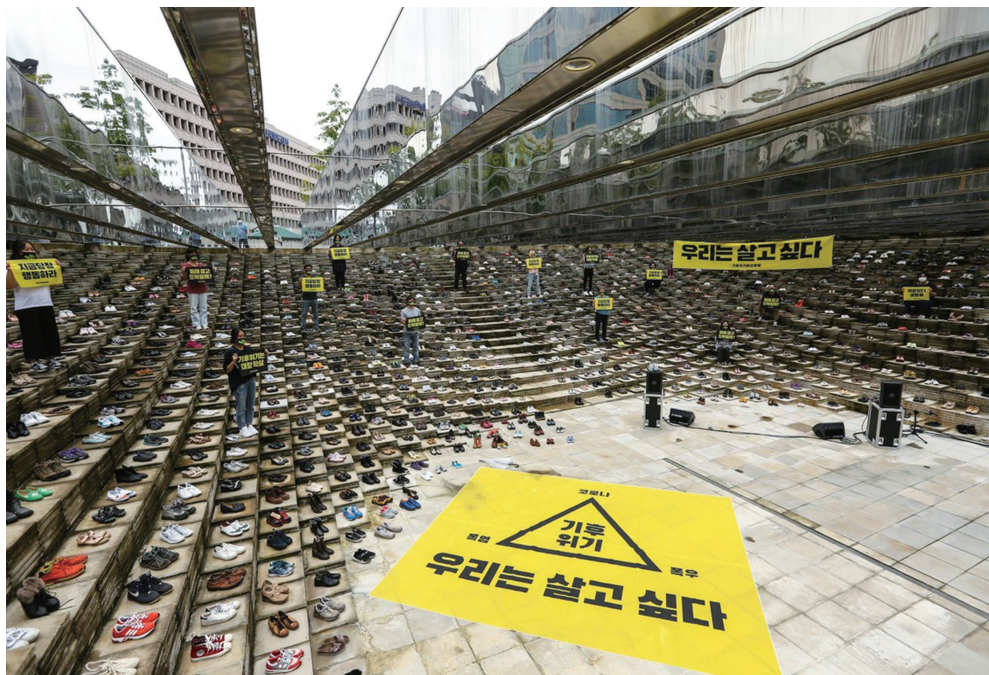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폐지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올 한 해 건강과 대안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공동행동>의 연대활동을 통해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권리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으나 이후 재생산권과 젠더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국 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법 체계 논의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입법부의 실수나 고민 부족이 아니라 재생산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할 남은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0년은 우리 사회에

서 임신중지 상담체계에 대한 고민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 중지에 대한 공적 의료서비스 보장 등의 논의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해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운동에 연대하다

기후위기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과대안은 기후위기는 곧 건강위기이고 생명위기임을 알리며 기후위기 대응 운동에 함께 연대했습니다.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히 불평등을 심화하는 문제에 대해 대중 강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유행 역시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함께 활동했습니다.



영리병원 허가 반대 싸움을 승리로 이끈다



2020년은 오랜 싸움 끝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 결정을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결국 중국 복지그룹측이 제기한 복지그룹병원 개설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나라의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의 예외를 허용하는 영리병원을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민사회의 오랜 싸움이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건강과대안은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영리병원 허가 취소 운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해 나가는 의료공공성 운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들이 참여한 2020년 도서 소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20년 재정 결산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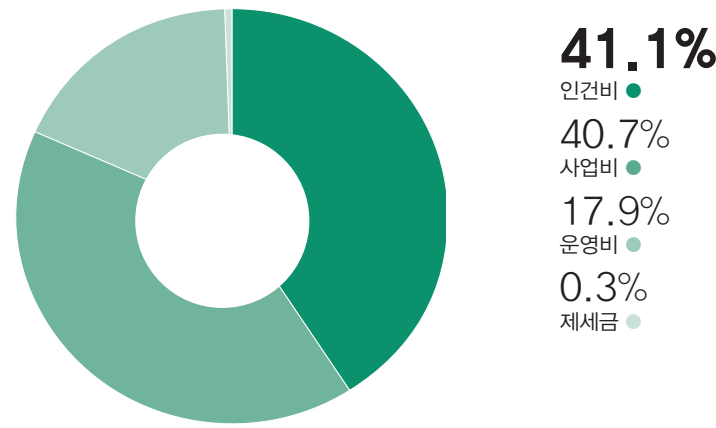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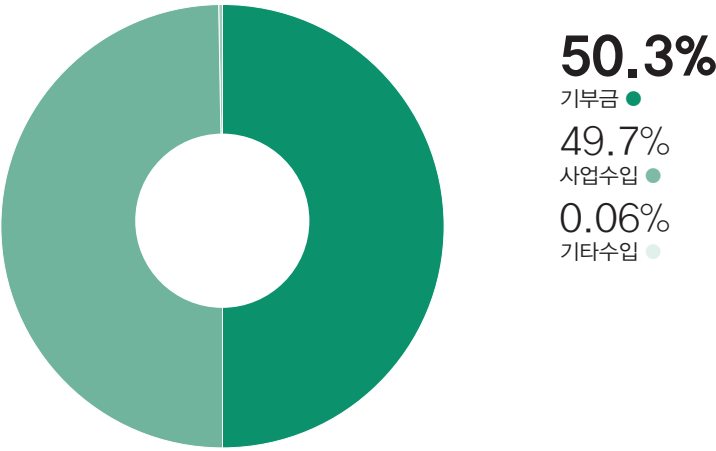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백분율	항목	금액	백분율
전년이월	4,556,852		인건비	40,794,790	41.1%
기부금	60,188,200	50.3%	사업비	40,356,504	40.7%
사업수입	59,442,802	49.7%	운영비	17,702,220	17.9%
기타수입	69,478	0.06%	제세금	299,170	0.3%
합계	124,257,332	100%	합계	99,152,684	100%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7년 운영성과표(2020.1.1 - 12.31)

§ 백분율은 전년 이월금을 제외한 총 수입 중 백분율임

※ 사업수입에는 Open Society Fund, 재단법인 숲과나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등이 지원한 연구용역 사업수입이 포함되어 있음.

※ 후년 이월액 : 25,104,648원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소개

건강은 의료 서비스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윤만을 위한 기업 세계화는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건강과대안은 좁은 의미의 보건의료를 넘어 모두의 건강을 위한 사회와 그 대안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건강과대안은 의료보장제도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시장주의에 반대합니다.

의료는 이윤논리에 지배되어선 안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건강과대안은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기계 취급 받고 온갖 유해물질에 노출된 상황을 바꾸고자 합니다.

여성과 아동 그리고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착취에 반대합니다.

건강과대안은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이 이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생명/의료윤리의 사문화, 윤리적 고려 없이 자행되는 임상시험에 반대합니다.

건강과대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의 거주환경과 건강이 파괴되는 상황을 멈추고자 합니다.

건강과대안은 먹거리 독점과 불건강한 먹거리가 질병을 만드는 기업 세계화에 반대합니다.

광우병과 조류독감 GMO 등 문제는 먹거리와 생태계를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았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건강과대안은 약값이 너무 비싸 사람이 죽어가는 의약품 특히 체계를 반대합니다.

의약품은 독점되거나 이윤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필수약품을 위한 투자와 공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0년 운영위원

강경화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김관옥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병수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박준규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문화인류학과
유현미 사회학 박사과정수료
전진한 의사
최규진 인하대학교 의료인문학교실
채민석 치과의사

대표
김의동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대표
문현아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정치학 박사
우석균 가정의학전문의·경제학 박사과정수료

감사
리병도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책임연구위원
이상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상임연구위원
박 건 사회학 박사
변혜진 사회학 박사과정수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04779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39(성수동1가) 경동빌딩 2층

TEL_ 02-747-6887 FAX_ 02-3672-6887

e-mail_ healthcommune@gmail.com

homepage_ <http://www.chsc.or.kr>